

##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민주화 운동의 성공: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박윤주\*\*

단독/계명대학교

**Park, Yun-Joo (2020) "Social Movements Theory and the Success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xico 6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of Korea"**

###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tool to evaluate the success or failure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movement theory. It reviews existing theoretical criteria and typologies for the success of social movements, and it attempts to provide a new approach by going back to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social movements and their purposes. This endeavor allows the author to propose that the goal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is the transformation of authoritarian power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extent to which a democratization movement contributes to overcome such relations should be the indicator of success of a movement. To test the argument, this paper examines the Mexico 6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of Korea. As a result, it becomes evident that despite apparent similarities as failed democratization movements violently repressed by the State, the two movements differ greatly in terms of their contribution to the further transformation of power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In sum, this study provides a valuable theoretical tool to systematically measure the outcome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deepens our understanding of the two important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Mexico and Korea.

**Keywords:** Democratization movements, Social movements, Mexico 68 Democratization Movements, 5·18 Democratization Movements of Korea / 민주화 운동, 사회운동이론,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

\* 본 논문은 2018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Yun-Joo Park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at Keimyung University, Korea (yunjoopark@kmu.ac.kr).

## 서론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계속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운동은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광범위한 사회운동이다. 이 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냈으니 요구 사항을 달성하였고 성공한 사회운동으로 분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어느새 박근혜 탄핵 운동은 ‘촛불혁명’으로 재평가 되었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들과 이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세력들 모두에게 미완의 운동으로 여겨지는 듯하다(김인회 2019; KBS News 2017; 임혁백 2017).

이렇듯 민주화 운동의 경우, 운동 참여자들의 정치적 요구사항의 달성만을 그 성공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족해 보인다. 많은 민주화 운동이 운동 당시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관철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그 사회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 받거나 혹은 이와는 반대로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소기의 정치적 요구 사항을 관철시켰으나 이후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민주화 운동은 운동의 참여자들의 요구 사항이 충족된 이후에도 그 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빈번히 이루어져 왔다(Hunter and Lozada 2019; 박용일 2008; Korkut 2005; Paley 2001). 하지만 이러한 평가의 바탕이 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규명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결과, 민주화 운동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연구자 각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져, 연구자들 간의 의미 있는 논의를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성공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성공의 요인을 파악하는 작업 또한 가능하다. 모든 사회운동이 그러하겠지만 민주화 운동 역시 성공을 추동한 전략과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향후 사회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핵심적이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의 성공요인 및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도 무엇이 민주화 운동의 성공인가를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에서 제시하는 사회운동의 성공의 의미를 고찰하여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분석하는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인 민주화 운동의 연구 범위를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으로 제한한 이유는 민주화 운동을 정치제도적인 관점이 아니라 민주화를 요구하는 행위주체들(actors)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즉,

본 연구는 민주화 운동을 정치제도의 변화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의 권위주의적 권력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행위주체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행위주체의 요구인 권위주의적 권력 관계의 변화를 추동하는 데에 각 사회운동이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의 성패를 규명하였다. 따라서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은 행위주체들이 요구했던 권위주의적 권력관계의 변화에 각 사회운동이 끼친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권력관계 전환은 1) 행위주체들의 운동 당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요구사항의 관철을 통한 권력관계의 전환, 2) 행위주체들에게 가해졌던 국가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 그리고 3) 사회운동에서 행위주체들이 꾸준히 주장했던 권위주의의 구조적 청산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으로 세분화하였다.

강력한 민주화 운동의 전통을 자랑하는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은 모두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을 연구하는 데에 훌륭한 토양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화 운동의 최종적 목표인 민주적 정권 수립 이후 한 세대가 지난 시점에서 한국과 라틴아메리카는 민주화 운동의 성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배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그 중 유사한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목적을 공유하는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에 주목하였다. 이 두 운동은 운동이 발발한 시점 당시 사회운동의 행위주체들이 원했던 결과를 이루지 못한 실패한 민주화 운동이었으나, 이후 두 운동이 각 사회의 권위주의적 권력관계의 전환에 끼친 영향력에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두 민주화 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요구사항의 관철이라는 고전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절한 비교의 사례를 제공한다. 사례 선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 3장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 및 5·18 민주화 운동 배경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가능하는 세 가지 기준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을 고찰하였다. 두 운동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설명함에 앞서 이 두 운동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이론적 기준에 근거하여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을 비교분

석하였다. 사회운동이론의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세 가지 권위주의적 권력관계 전환의 지점에서 두 운동이 기여한 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유사한 두 운동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두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밝혔다.

## 이론적 고찰: 권력 관계 전환을 중심으로 본 사회운동의 성공

### 기존 사회운동론에서의 성패 연구

2020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구글 학술자료 검색을 통해 “Social Movements (사회운동)”와 “Success(성공)”를 검색하면 3,490,000개의 학술자료가 검색된다. 검색의 폭을 좁히기 위하여 “Success(성공)”와 “Failure(실패)”를 함께 검색하면 1,560,000개의 논문들이 다양한 사회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기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 숫자의 연구가 모두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백만 개가 넘는 관련 학술자료의 존재는 학계가 사회운동의 성패 규명에 갖는 뜨거운 관심을 확인시켜준다. 어쩌면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운동론의 목적이 사회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기증하고 전략의 성패를 고찰하며 나아가 그 성패 요인을 분석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운동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자원동원론, 정치기회구조, 프레임 정렬이론 등은 모두 언제 사회운동조직이 성공적인 사회운동을 펼칠 수 있는가를 규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듯 사회운동 성패요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이 사회운동의 성공 혹은 실패인가에 대한 이론적 규명이다. 무엇이 성공 혹은 실패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학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성공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왔다(Gamson 1990; Guigni 1998; Haiven and Khasnabish 2013 등).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윌리엄 갬슨(William Gamson)이다. 1800년대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사회운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갬슨은 1990년에 발표한 『사회적

시위의 전략 *Strategy of Social Protest*』이라는 저서에서 사회운동의 완벽한 성공을 사회운동의 요구가 사회운동체가 도전하는 집단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사회운동이 이해집단의 대변인으로서 입지를 인정받는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그는 완벽한 실패를 사회운동의 붕괴(collapse)로 규정하였고, 이는 사회운동이 도전했던 집단으로부터 어떠한 성과도 얻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불만(grievance)을 대변하는 집단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았다. 그는 완벽한 성공과 완벽한 실패 사이에 선점(pre-emption)과 포섭(co-optation)이라는 결과도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깬슨이 제시한 사회운동의 성공 및 실패의 기준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정교하고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McAdam et. al. 1988, 727).

깬슨이 제시한 사회운동 성공의 분석틀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장 왕성한 작업을 한 이들이 정치운동 즉 정치적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다. 이는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해 도전하는 사회운동의 경우 문화의 재구성이나 정체성의 정치를 요구하는 사회운동보다 상대적으로 성공을 규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폴 슈마커(Paul Schumaker)의 정치적 사회운동 성공 유형이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사회운동의 성공은 해당 운동이 정부 혹은 사회로부터 얻어낸 정책적 대응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그 유형은 아래와 같다.

표 1. 정책적 대응의 유형

유형	예
접근(access)	정치적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 및 증언하거나 법정에 참고인 소견을 제출함
아젠다(agenda)	정치적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요구한 법안이 상원 혹은 하원에 제출됨
정책(policy)	정치적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결과(output)	정치적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법안이 효력을 발생함
효과(impact)	법안이 정치적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기대한 결과를 도출함
구조적(structural)	정치적 사회운동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남

(Burstin et. al. 1995, 284)

슈마커는 깬슨이 제시한 성패의 분석틀을 정치적 사회운동에 적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으며, 깬슨의 틀이 사회운동의 구조적 영향을 성공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구조적(structural) 변화를 분석틀에 포함하였다. 깬슨의 틀에 비하여 좀 더 구체화되고 광범위한 틀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슈마커의 틀은 여전히 정치적 사회운동의 ‘사회운동’으로서의 측면, 즉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인색한 도구이다. 정치적 사회운동의 ‘정치적’ 성격에 몰입된 나머지 제도 정치 내에서 축적된 성과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기존의 사회운동 성패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회운동론에서 사회운동의 정의와 목표가 어떻게 규정되어왔는가는 고찰하고, 그에 근거하여 기존의 성공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 기준:

### 민주적 권력관계로의 변화

스노우 등(Snow, Soule and Kriesi 2004, 6)의 정의에 따르면, 성공한 사회운동은 ‘일종의 변화를 모색하는 목표’를 달성해야하며, ‘일정 기간 지속’되고, ‘제도권 조직의 틀 밖에서’ 일어나야하며, ‘어느 정도의 조직적 집단행동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성공의 요소 중 가장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일종의 변화’였으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사회운동론의 이론가들은 무엇이 사회운동이 추구하는 ‘변화’인가 혹은 ‘변화’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 논쟁은 본 논문의 문제제기와도 닿아있다.

사회운동의 연구자들은 사회운동의 정의와 전략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지만, 사회운동의 대상은 사회구조이며 사회운동의 목표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변화로부터 옹호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분석한다면 이러한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거의 모든 사회운동에서 행위주체들은 사회운동의 목표로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관철 뿐 아니라 사회운동의 행위주체들이 불만(grievance)을 갖게 한 대상과의 사회관계 특히 권력 관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회운동의 성공은 사회운동에 참여한 개인들이 공통으로 불만(grievance)을 갖는 대상과의 관계가 본원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예컨대 낙태합법화운동의 행위주체들은 낙태라는 행동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낙태를 불법화하는 가부장적 사회와 여성 간의 관계 변화를 요구하며, 1960년대 미국 흑인들의 시민운동의 주체들은 선거권 보장과 분리주의의 철폐를 시작으로 종국적으로는 흑인 및 유색인종과 주류 백인 사회의 관계가 평등해지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운동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성공은 어떻게 이론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은 행위주체들의 즉각적인 정치적 요구사항들의 달성과 함께 행위주체와 국가의 관계가 민주적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권위주의 정권의 교체와 동일시하는 시각이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주화 운동의 사례를 미루어 볼 때, 그 같은 기준으로 소위 ‘성공’한 민주화 운동의 예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어머니회 운동이 그러했고, 한국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멕시코의 6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최근에는 아랍의 봄을 상상하게 했던 아랍 각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모두 운동이 발발한 당시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운동들은 향후 각 사회의 민주화에 다양한 강도로 영향을 끼쳤으며, 각 사회가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고 난 이후 보여준 정치적 행보도 상이하다. 따라서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규명하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시각을 넘어서는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의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2. 사회운동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성공: 민주적 권력관계로의 변화

기여 지점	예
행위주체들의 요구사항 관철	· 군사정권 퇴진 · 공정한 선거 실시 등
행위주체에 가해진 국가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	· 정치범 사면 · 폭력경찰 처벌 ·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 등
행위주체와 국가 간 권위주의의 구조 청산	· 선거제도 개혁 · 사법 개혁 · 헌법 개정 등

본 연구는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운동의 행위주체와 국가 간 ‘권력관계의 변화’라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기존 권위주의적 권력관계의 민주적 변화를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이 권위주의적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동하는 세 가지 지점을 민주화 운동의 행위주체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지점은 ‘행위주체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이다. 민주화 운동이 발발한 당시 운동의 행위주체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하다. 군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공정한 선거의 실시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극각적 주장들의 관철 여부는 권위주의 정권과 시민사회의 권력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베버가 주장하였듯이 권력은 타인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Weber 1968, 212). 민주화 운동의 행위주체들이 권위주의 정부가 그동안 제도적으로 거부해왔던 행위를 강제했다면, 이는 민주화 운동의 행위주체의 권력이 권위주의 정부에게 행사되었다는 뜻으로, 강력한 권력관계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지점은 ‘행위주체들에게 가해진 국가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이다.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은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련의 비민주적인 행태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러한 노력의 성공 여부가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점은 ‘행위주체와 국가 간 권위주의적 권력 구조의 청산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 즉 민주정부 출범과 그에 따른 일련의 민주적 정치 개혁이다. 민주정부 출범에는 특정 사회운동의 기여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따라서 세 번째 기준에 대하여 분명히 할 점은 민주정부의 출범 자체만으로 특정 민주화 운동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과 민주정부의 출범 및 민주적 정치 개혁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세 번째 지점이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민주화 운동의 행위주체들이 민주정부의 출범 및 민주적 정치 개혁에 기여한 바를 역사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운동의 행위주체들과 국가 간 권력관계의 변화에 특정 사회운동이 끼친 영향을 그 성패의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패를 고찰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안하고자한다. 이러한 기준을 제안하는 목적은 특정 사회운동의 의미를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해 온 사회운동들의 장기적이고 본원적



인 성과를 드러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기준을 통하여 민주화 운동의 성패를 고찰함으로써 성공한 민주화 운동의 교환만큼 실패한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과 교훈을 정확히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얻은 성공한 민주화 운동의 기준을 활용하여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의 성패를 가늠해보았다.

##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의 5·18 민주화 운동 배경

### 사례 선정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라틴아메리카는 모두 사회운동 연구에 적합한 역동적인 사회변동의 역사를 갖고 있다. 즉 두 지역은 모두 다양한 사회운동이 발화하고 성공하거나 실패한 수많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두 지역이 좋은 사회운동의 토양을 제공하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두 지역 모두가 겪어야했던 개발독재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패를 규정하는 연구의 사례로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을 선정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두 운동이 정치경제적 배경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멕시코는 1940년대부터 역시 1980년대 말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강력한 개발독재를 경험하였다. 신흥 산업국으로서 짧은 시기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야한다는 명제를 앞세운 권위주의 정부는 한국과 멕시코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을 막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탄압했다. 물론 멕시코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표면적으로 제도민주주의를 유지했던 1당 독재와 최소한의 민주적 제도마저 파괴했던 군사독재라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정치참여가 제한되고, 정치권력이 독점되었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두 사회 모두 강력한 시민사회의 저항과 민주화 요구에 맞닥뜨려야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은 모두 산업화 시기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저항으로 촉발되었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운동의 폭발적인 확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 또한 유사하다.

두 사례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두 운동이 모두 무자비한 권위주의

정권의 무력 진압에 의해 해산 당했다는 점이다. 멕시코와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군사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사상자를 양산하는 폭력적인 진압이 동반되었다. 두 사회 모두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성을 목도하였다. 유혈사태로까지 번진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은 민주화 운동 조직과 참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처벌로 이어졌고, 권위주의 정권은 붕괴된 민주화 운동 위에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두 민주화 운동 모두 발발 당시 패배한 사회운동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목적으로 한 멕시코의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는 당시 도래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화 운동 세력이 상당한 내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멕시코 68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은 모두 당시 사회운동의 행위주체들의 요구가 즉각적으로 관철되지는 못하였던 실패한 운동이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을 요구사항의 즉각적 관철이라는 상식수준의 기준보다 더 확장시키고자하는 본 연구에서는 외형적으로 실패한 듯 보이는 두 운동이 좋은 사례가 되어준다.

이 두 사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외형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운동의 진행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화 이행 과정에 두 운동이 끼친 영향에서 보이는 차이점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행 이후 꾸준히 한국 민주화의 근간이 되는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분명해지고 있는 반면, 멕시코에서 68 민주화 운동은 불행하고 실패한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만 기억되고 있는 현실이다. 두 운동 모두 다른 사회운동들에 영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민주화를 견인한 운동으로 평가 받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과는 달리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이 멕시코의 민주화를 추동한 사건으로 기록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한국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였고, 멕시코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일까? 이 두 운동의 차이를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교한 학술적 기준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은 비교분석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례들이다. 정치경제적 즉 구조적으로 유사한 조건을 공유하며, 운동의 가시적 결과는 동일하지만 두 운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유사하지만 다른 사례(similar but different case)들은 그 다음의 근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틀의 형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례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권력 관계 전환에의 기여’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이 두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두 운동의 유사성 속에 나타난 차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의 정치·경제적 배경

멕시코의 68 민주화 운동은 1968년 7월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 틀랄텔콜코 학살로 마감된 민주화 투쟁이다. 이 운동의 결과 정부 추산 30여 명 하지만 목격자 추산으로는 300에서 500여 명이 사망하였고, 정부 추산에 의하면 약 2,500명이 부상당하고 15,0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윤경 2018, 55). 이토록 폭력적인 정부의 탄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정치, 사회 및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은 당시 장기집권을 이어가던 제도혁명당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 제도혁명당은 1917년 멕시코 혁명의 결과 탄생한 정당으로 1990년대 초까지 무려 70여 년간 정권을 유지하며 멕시코의 권위주의 정치시스템을 대표해왔다. 제도혁명당은 혁명 이후 다양한 혁명의 약속을 제도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 멕시코의 석유를 국유화시키고, 국립대학교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일련의 농지개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0년 마감한 카르데나스 정권 이후 제도혁명당의 ‘혁명상’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멕시코 사회는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 하의 집약적인 산업화를 경험하였으며, 이 기간 집권한 제도혁명당 정권들은 이러한 집약적 산업화 정책을 ‘혁명적 민족주의’로 명명하였다(김윤경 2018, 42). 이는 다른 의미로는 소외 계급과 인종 그리고 농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혁명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던 ‘민족주의 혁명’의 시대가 가고 멕시코라는 국가의 성장을 위해 혁명의 정신이 양보를 거듭해야하는 ‘혁명적 민족주의’의 출범을 의미한다.

그러한 일련의 정책은 멕시코에게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가져다주었으며 이를 ‘멕시코의 기적’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멕시코의 1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평균 3.35% 성장을 거듭해왔는데

이는 같은 기간 고속성장을 경험했던 미국의 그것인 2.4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Russell, 2011, 423). 하지만 경제 성장이 곧 멕시코 사회의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역사학자인 러셀(Russell)은 이 기간을 오히려 ‘완벽한 독재(perfect dictatorship)(2011, 422-425)의 시기로 규정한다. 이 기간 동안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은 멕시코 정치의 오랜 전통인 코포라티즘과 클리엔텔리즘을 완성하였고 제도혁명당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와 이들의 압도적인 국정 장악력을 통해 멕시코의 권력을 독점하였다.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은 이러한 멕시코 권력관계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강력한 권력을 독점한 정당 및 기득권 세력과 그들로부터 포섭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시민 간의 관계는 불평등했다. 플래허티(2016)는 그의 저서 *Hotel Mexico : dwelling on the '68 Movement*에서 이러한 멕시코의 권력관계를 부성애적 호의(paternalistic hospitality)로 규정한다. 즉, 멕시코라는 공간은 국가가 아버지로서 시민에게 호의를 베풀고, 시민은 자녀 혹은 손님이 되어 그러한 환대를 받는 곳이라는 것이다. 호의를 베푸는 아버지와 자녀 혹은 손님의 관계는 대등하거나 민주적일 수 없다.

플래허티의 분석에 따르면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이 운동은 자녀 혹은 손님의 역할을 강요받은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대우를 요구한 사건이라면, 제도혁명당 정권에게 이 사건은 호의를 베풀어온 아버지가 버릇없이 대드는 아이 혹은 손님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진압한 사건이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멕시코 68 학생운동에 동조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선 반면, 또 다른 많은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소요행위로 폄훼하며 정부에게 더욱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하였다(Pensado 2013, 1). 개발독재가 약속한 경제발전이라는 핑크빛 약속을 추종하는 시민들에게 멕시코의 68 민주화 운동은 그 핑크빛 약속을 위협하는 버릇없는 젊은이들의 소요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지금도 멕시코 사회에 잔존한다.

### 5-18 민주화 운동의 정치·경제적 배경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등장한 신군부 세력의 진압에 맞서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등을 외치며 저항했으나, 5월 27일 계엄군의 무자비한 전남도청 진압작전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종결되었다(5·18기념재단 2020).

5·18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켰던 잔혹한 군부의 폭력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 당시 상당한 격변을 경험하고 있었던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사망이다. 그는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지 18년이 되던 해에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 의해 살해당했다. 당시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미 가장 오랜 기간 정권을 유지한 독재자였던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가동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고 있었다. 따라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살해당한 사건은 오랜 시간 민주화를 염원하며 반독재 투쟁을 이어갔던 시민들에게 독재의 종식을 의미했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력히 분출되었다(안종철 2015; 최완규 1988). 그러나 같은 해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주동하고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민주화를 염원했던 시민들의 기대는 빛나갔다(518기념재단 2020; 이상규 2019).

신군부 세력의 군사 독재 연장 시도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은 강력하였다. 전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조직되었는데, 특히 5월부터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신 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조직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에 공감하고 동참하였다(노영기 2013, 355).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신군부의 대응은 더욱 적극적인 탄압이었다. 5월 17일 24시를 기해 신군부는 긴급조치를 통하여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당시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었던 대학들에 대한 휴교령을 내렸다. 재야 정치인들은 연금을 당했으며 민주화 운동의 주도세력에 대한 연행 및 구금 조치가 내려졌고, 국회, 주요 대학, 정부 기관, 언론 및 방송사 등에 계엄군을 배치함(안종철 2015)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공포 정치를 시작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배경에 군부 독재와 폭력적 권위주의가 존재했다면 경제적인 배경 또한 주목할 만하다. 박정희 정권은 전형적인 개발 독재를 통하여 1960-70년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정희 정권이 구축한 유신체제는 '수출주도형 발전국가' 모델을 따르면서 경제의 전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그 기반에 두었다. 따라서 국가는 자원형성과 투자배분뿐

만 아니라 금융, 시장, 조세, 가격 등 거의 전 영역을 통제하였다. 결국 국가와 국내자본 간의 강력한 연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가 결정하고 국내자본이 수행하는 효과적인 경제성장의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임현진 2015).

그러나 이러한 발전국가체제는 상당한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베트남 전쟁 참전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 한국 사회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국가와 재벌 간의 결탁, 노동자에 대한 탄압,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이 모두 용인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경험하였다. 견제를 받지 않는 국가 권력의 경제 개입은 문란한 산업정책의 원인이 되었다. 나아가 국가와 밀착 관계를 형성한 국내 자본이 재벌로 성장하고 국내 기업구조를 지배하는 병폐를 낳았다(이병천 2000, 126).

따라서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 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자각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진행된 ‘함평고구마투쟁’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하에서 산업화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던 농업 부문의 시민들이 독재 정권에 저항한 사례이다(노영기 2013, 354). 이후 5·18 민주화 운동에 학생과 지식인 뿐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들이 강력하게 결합하게 된 배경에는 박정희 독재정권의 정치적 억압 뿐 아니라 경제 정책의 실패도 있었다.

이 장에서는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이 본 연구의 사례로 선택된 이유를 소개하고, 각 운동의 정치 및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권력 관계 전환의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두 민주화 운동을 비교하고 그 성패를 분석하였다.

## 비교분석: 권위주의적 권력 관계의 전환

### 요구사항 관철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은 1968년 7월 23일 멕시코시티에서 일어난 고등학생 간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행사한 과도한 폭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폭력사태에 가담한 학생들을 쫓아서 학교 건물로 난입한 경찰은 싸움과

는 무관한 선생님과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후인 7월 26일 학생들은 경찰의 폭력 행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하였으나, 경찰은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다시 한 번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학생들은 경찰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버스를 탈취하고 몇몇 학교를 점거하였다. 7월 30일 경찰은 멕시코 국립대(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와 멕시코 국립 기술대학(Instituto Nacional de Politécnico) 부설의 4개 고등학교에 진입하여 시위 학생들은 연행하였다. 그날 400여 명이 부상당하고 1천여 명이 검거되었으나 시위는 계속되었다(Russell 2011, 414).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전국 단위의 단체가 구성되어 시위를 주도해나가기 시작하였는데 그 조직이 바로 전국동맹휴업위원회(Consejo Nacional de Huelga: 이하 CNH)이다. CNH는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전국의 국공립 대학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CNH는 사회운동조직으로서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의 목표와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처음 구성되었을 시 CNH의 요구는 헌법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상세한 내용은 1)헌법에 따라 정부의 탄압을 중단하고, 2)폭력행위자들을 처벌하며, 3)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4)정치범을 석방하고 4)공식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달라는 것이었다(Allier-Montaña 2016, 8).

이후 2달 여 동안 CNH를 중심으로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은 시위를 계속해 나갔으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대학교수, 학부모, 교직원들 까지 시위에 동참하였고, 노동자와 농민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하였다(김윤경 2018, 51).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CNH와의 협상을 거부하며, 이들의 시위에는 배후가 있다고 선동하였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되어있고, 폭력을 일삼는 철없는 학생들이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Pensado 2013, 134-5). 결국 1968년 10월 2일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무장 탄압으로 인하여 급작스러운 종결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5,000명에서 10,0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은 틀랄텔콜코의 삼문화(Tres Culturas)광장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5천여 명의 군인들이 시위대를 둘러싸고 총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살해되거나 부상을 당했으며 군에 의해 체포되었다(Russell 2011, 416). 현재까지도

틀랄텔랄코 학살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시민의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1969년 CNH가 발표한 사망자의 수는 약 150명이며, 미국 대사관은 사망자를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추정하였다(Allier-Montaña 2016, 8).

약 세 달가량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시위와 틀랄텔랄코의 학살은 멕시코 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다. 개발도상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세계 사회 속에서의 위상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디아스 오르다스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세계는 멕시코 권위주의의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CNH는 정부의 강력한 음모론에 기반을 둔 미디어 캠페인과 시민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운동의 동력이 사그라지는 것을 목격해야했다. 결국 CNH는 1968년 12월 5일 스스로 조직을 해산하고 학생들도 학교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고 애초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이 요구했던 요구 사항이었던 1)헌법에 따라 정부의 탄압을 중단하고, 2)폭력행위자들을 처벌하며, 3)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4)정치범을 석방하고 4)공식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달라는 주장 중 어느 하나 관철되지 못했다.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 운동의 요구사항도 당시에는 관철되지 못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휴교령에 저항하며 등교하여 교문을 봉쇄하고 있던 계엄군에게 휴교령 철회를 요구하며 대치했던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에서부터 촉발되었다. 학생들의 시위에 7공수여단 33대대 병력이 폭력적 진압을 시도하였고, 오전 11시 10분 경 저항 끝에 해산 당한 전남대 학생들은 전남대를 출발하여 전남도청이 위치한 금남로로 이동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가두시위를 계속했다. 전남대 학생이 주축이 된 도심 가두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오후 4시경부터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 이들은 시위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음은 물론 남녀 젊은이들을 속옷만 입힌 채로 연행하거나 기합을 주는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이 속속 반독재 시위에 동참하여 산발적 가두시위가 시민항쟁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20일경부터 공수부대들은 수세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통행금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5월 20일 늦은 밤에서 21일 새벽까지 공수부대와 접전을 펼쳤고, 결국 위기에 몰린 공수부대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노영기 2014, 257-259).

5월 20일 공수부대의 시위대에 대한 발포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전략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시민에 대한 발포를 목격한 광주 시민들은 자위권 차원에서 시민군을 조직하고 자치공동체를 구성하여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발포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의 분노는 광주 전역에서 표출되었다. 그 결과 5월 21일 12시 경 약 3만 명의 시민들이 공설운동장으로 집결하였으며, 전남대와 조선대 등지에서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다(노영기 2014, 261).

5월 21일 시민들의 저항에 못이겨 공수부대가 도청에서 철수하자 시민들은 억압적 공권력의 부재로 인한 권력의 공백을 스스로의 조직으로 채워나갔다. 이 시기를 ‘해방광주’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 동안 5·18 민주화 운동 주체들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급적 평화적인 투쟁을 호소하고 지역 사회의 무너진 질서를 스스로 회복할 것을 호소하였다(김희송 2015, 76). 그러나 이렇듯 응집된 조직력을 보여주었던 5·18 민주화 운동은 5월 27일 무자비하게 진행된 군부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의 결과 중단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강력한 조직력과 참여자들의 응집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비상계엄 즉각 해제와 유신체제의 해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권위주의 정권이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촉발되었다. 멕시코의 시민들과 한국 광주의 시민들은 모두 공권력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오늘날 해당 국가의 근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화 운동을 조직해 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민주화 운동은 운동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해내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그 당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권위주의적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두 운동 모두 사회운동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가늠하는 첫 번째 지점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

운동 당시 요구사항의 관철을 이뤄내지 못하고 오히려 무자비한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된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각각의

사회의 권위주의적 권력관계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이를 고찰할 수 있는 두 번째 지점은 사회운동의 행위주체들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을 통한 권력관계의 전환에 각각의 운동이 기여한 바를 살펴보는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CNH의 해체와 디아스 오르다스 정권 및 제도권 언론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하여 폭도 세력의 준동으로 낙인 찍혔던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은 1970년 에체베리아 대통령의 당선으로 재평가의 기회를 얻는다. 1968년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서 틀랄텔랄코 학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에체베리아 대통령은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거리를 두고자 ‘민주적 개방’이라는 슬로건 하에 일련의 개혁 정책을 추진했으며, 아직도 수감되어있던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을 석방하였다. 아울러 학생들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에 이른다(Allier-Montaña 2016, 9-10).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 당시 발생한 학살과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의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특히 당시 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자였던 에체베리아 정부가 추진한 ‘민주적 개방’에 대하여 학생들은 반발하였고, 1970년 6월 10일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였다. 전 정권의 폭력성과 선을 굽고자 노력했던 에체베리아 정부는 이 시위에 경찰과 극우 집단을 투입하여 시위대 중 11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 관련 국가의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의 첫 시도는 또 다른 국가 폭력의 발생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 관련 학살과 폭력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2000년이 되어야 다시 찾아왔다. 70년이 넘는 제도혁명당의 독재를 무너뜨린 국민행동당은 1979년부터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개최하며 제도혁명당 정부를 비판했으며, 제도혁명당의 일당독재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폭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제도혁명당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폭스 대통령도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는 권위주의 정권의 범죄를 처벌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복원하는 데에 무심했다.

국민행동당의 폭스 대통령은 취임 후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을 종결시켰던 틀랄텔랄코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을 목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카리요 프리에토(Carrillo Prieto)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조사를 지시하였다. 카리요 프리에토 특별검사는 틀랄텔라코 학살의 주동자로 에체베리아 전임 대통령과 그의 측근 7명을 ‘인종학살’이라는 다소 의아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에 대한 기소는 다양한 이유로 법정에서 기각되었으며, 에체베리아 전임 대통령의 경우 피의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택연금에 처해졌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기각되었다(Los Angeles Times 2006).

멕시코의 기득권 세력이 앞으로도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 탄압의 가해자들을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세울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는 멕시코가 2001년 12월 인준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시효 부적응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이다. 이 협약은 1조에서 인종학살과 같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의 시점과 무관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 협약에 “오직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는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을 삽입함으로써 소위 ‘민주화’ 이전에 저지른 모든 국가의 폭압적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주었다(Quezada and Rangel, 2006).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에서 일어난 국가 폭력과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법처리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과정을 통하여 시민사회와 국가의 권력관계의 변화가 추동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권력 관계가 재확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진상조사와 사법처리의 과정이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이 멕시코 민주화에 기여하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멕시코의 비민주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이유는 멕시코 68 운동 세력들이 이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의 주역이 되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 중 제도정치에 환멸을 느낀 이들이 급진적인 게릴라 운동에 투항하기도 하였으나(김윤경 2018, 58-59), 대부분의 사회운동 참여자들은 제도혁명당 정권의 타도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나가지는 않았다. 코헨과 프레이저(Cohen and Frazier 2018)는 육팔세대(sesentayocheros)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그들이 평가하는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을 소개하였는데, 코헨과 프레이저에 따르면 육팔세대들은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이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각자 개인의

삶, 그리고 자신이 국가란 무엇인가 깨닫게 된 계기로 인식한다(Ibid. 740).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이 급진적인 게릴라 운동에 투신하거나 일상 속에서의 개인적인 각성에 몰두한 반면, 5·18 민주화 운동의 주축들은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표면적으로 종식된 직후부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을 조직해나갔다. 그 시작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독재정권의 지속적인 왜곡과 음해를 폭로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은 운동 당시부터 시작되었고,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막았고, ‘광주폭도론’ 혹은 ‘내란론’을 유포했다. 즉 5·18 민주화 운동은 북의 사주를 받은 불순 세력에 의해 촉발된, 폭도들이 내란을 꾀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은 군부정권 7년 동안 계속되었다(지병문·김철홍 2001, 180). 동시에 5·18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었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광주시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의 관련자들을 미행하였고, 가택을 감시했으며,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이 묻혀있는 망월동 묘역의 출입은 통제되었다. 매년 기획된 추모제는 저지되었고, 생활이 어려운 조직원들에게 협박과 회유가 계속되었다(Ibid. 2001, 183).

하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정의실천사제연합과 1980년 5월 30일 생겨난 5·18 광주거주유족회를 중심으로 매년 추모제가 실시되었다. 이 추모제는 엄혹한 군사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염원을 기리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고, 해가 거듭될수록 5·18 추모제는 전국의 대학,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들이 군부의 인권 유린을 기억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장으로 승화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목표가 살아남아서 군부 하의 권력구조 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1987년 5월 18일 치러진 ‘광주민중항쟁 제7주기 미사’이다. 이 추모미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승훈 신부에 의해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이 폭로되었고, 이는 신군부 정권의 도덕성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군사 독재 타도와 민주화의 완성을 가져온 6·10 항쟁이 시작되었다(허핑턴포스트 2016).

유가족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 전두환 정권 다음으로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거리두기에 나섰으며 전임 대통령과의 선긋기를 시도했다. 1988년 4월 1일, 노태우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이라는 종합적 보상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유가족회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근본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1993년 5월 13일 군부독재 후 문민정부 1기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였고, 1996년 검찰수사를 통하여 신군부 인사의 쿠데타 집권 및 5·18 민주화 운동 유형진압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찰은 신군부의 핵심인사(전두환, 정호용, 이희성, 황영시, 주영복 등)들을 국헌문란 죄로 기소하였고, 1997년 대법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으로 판결하여, 신군부의 핵심인사(전두환, 정호용, 이희성, 황영시, 주영복 등)들을 5·18 민주화 운동 진압의 책임자로 판시한다(518기념재단 2020).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은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권력구조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에 존재하는 독재세력과 그의 추종자들을 단죄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는 일은 향후 권위주의적 권력의 행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의 5·18 민주화 운동 탄압 주역에 대한 법적 단죄 이후에 당선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들은 모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과 폭력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진상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책임자들을 사면할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멕시코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의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도론이나 내란론과 같은 역사 왜곡을 꾸준한 진상조사 노력 및 정부에 대한 자료 공개 요청으로 극복했으며,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진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형이며, 책임자들에 대한 좀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 또한 계속되고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5·18 민주화 운동은 진상조사와 처벌의 과정을 통해 당시 핍박받던 시민사회와 군림하던 국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폭도로 몰렸던 시민들의 위상은 헌법을 수호한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복원되었고,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국가권력은 헌법을 문란하게 한 국헌문란행위자로 규정되었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이 목표로 하는 권력관계의 변화를 이뤄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권위주의의 구조적 청산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규명하는 세 번째 지점인 권위주의의 구조적 청산을 통한 관계의 전환은 민주화가 의미하는 본원적인 개혁과 이에 따른 근본적인 권력 관계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이 그러한 변화에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 여부를 규명하는 다른 두 지점에 비하여 이 지점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기여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민주화 전반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늘 진행형이다. 그런 점에서 서로 다른 민주화 운동을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서로 다른 민주화 운동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의 구조적 청산에 성공하여 권력 관계의 전환을 더 경험한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원인을 파악하는 단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멕시코의 사례를 살펴보자.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은 앞서 언급한 두 지점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제도 정치권으로부터 끊임없이 소환되었고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앞서 언급했던 멕시코의 대표적 우파 정당인 국민행동당(Partido de Acción Nacional)이 1979년부터 시작한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행동당은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을 멕시코 사회의 전환을 요구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하였다(Allier-Montaño 2016, 11). 이후로도 국민행동당과 다양한 좌파 정당들의 멕시코 68 학생운동에 대한 재평가와 칭송은 계속되었다.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장본인인 제도혁명당의 약점을 공략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민주화 요구에서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비하여 막상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육팔세대는 오히려 차별한 입장을 보인다. 코헨과 프레이저(2018)는 육팔세대의 이러한 태도의 원인을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 주도세

력이 꿈꾸었던 민주화와는 동떨어진 멕시코의 ‘민주화’에서 찾았다. 즉 권위주의 국가의 전복과 혁명적인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전환을 요구했던 육팔세대에게 여전히 자본과 기득권에게 충성을 다하는 정치 시스템이 제도혁명당 일당제에서 제도혁명당과 국민행동당이 공유하는 다당제로 바뀌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육팔세대의 현실 인식은 매우 정확한 듯하다. 멕시코의 민주화라고 칭해졌던 국민행동당의 정권 창출은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 세대가 기대하거나 기여했던 정치 변화가 아니었다. 제도혁명당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국민행동당을 통한 정치변화를 멕시코 시민사회와 국가 간 권력관계의 변화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이 멕시코 사회의 권위주의적 권력 관계의 청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예는 국민행동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제도혁명당의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제도혁명당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페냐 니에토 정권 하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시위를 조직한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목격한다. 그것은 바로 아요치나파 학교(Ayotzinapa Escuela Normal)를 다니던 43명 학생들의 실종 사건이었다. 이들은 틀랄텔랄코 학살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Figueroa 2015).

이렇듯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은 당시 멕시코의 권위주의적 사회관계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저항을 기록하였으나 권위주의의 구조적 청산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물론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은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이후 멕시코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서 다양한 사회변혁운동에 영감을 주었다(김윤경 2018; Cohen and Frazier, 2018). 하지만 멕시코의 여러 사회운동에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멕시코 민주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는 것과 멕시코의 권위주의적 권력관계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아직도 멕시코 사회에서 민주화와 권위주의 청산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멕시코 시민의 75%가 정당을 불신하고 52%가 현 민주주의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Abascal 2020)이다. 그런 의미에서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지점 중 하나인 권위주의적 권력관계의 구조적

전환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달리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전환의 핵심을 담당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이 폭력적으로 종결된 이후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1980년 7월 17일 국민연합은 <전두환일당의 정권야욕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권위주의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1주기인 1981년 5월 18일 ‘전남도민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된 시국선언문은 당시 광주사태로 불리던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의가’로 규정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한 광주 시민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윤선자 2005, 82-83). 이후 매년 5월 18일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는 날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5년 5월 미문화원 점거 농성이다. 이 농성에서 서울 지역 대학생들은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함께 전두환 정권의 퇴진과 미행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하였다(Ibid. 84). 여기서 주목할 점은 5·18 민주화 운동 탄압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세력들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가해진 정부의 폭력의 책임을 묻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함께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과 이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시민들이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5·18 민주화운동 주체들의 지속적인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의 요구가 권위주의 정권 퇴진과 민주화의 요구로 확대 재생산된 것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6·10 항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10 항쟁을 촉발시켰던 1987년 5월 18일 치러진 ‘광주민중항쟁 제7주기 미사’는 5·18 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긴밀히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6·10 항쟁의 대표적인 요구는 호헌 철폐였다. 즉, 5·18 민주화 항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많은 사상자를 낸 장본인인 전두환 정부가 권위주의 정권이 만들어낸 헌법에 따라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의도로 추진한 ‘호헌조치’를 철폐하라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끈질긴 타도 투쟁의 저변에는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력을 단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정권 초기부터 그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5·18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과 그 가족들은 전두환 정권 내내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잊지 않도록 추모제와 각종 진상조사 요구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6·10 항쟁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5·18 민주화 운동 탄압의 책임자인 군부의 정치개입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성장하였으며, 전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정태일 2012, 198).

6·10 항쟁의 성공과 함께 도래한 한국의 민주화는 부침을 경험하였으나 제도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헌법을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김영삼 정부 하의 군부정권에 대한 사법처리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에 대한 처벌을 의미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군부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함으로써 군부의 정치개입이라는 민주주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였고, 문민통제를 강화하여 군과 시민사회의 권력관계를 재편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국회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여성후보 비율 30% 할당제,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참정권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민주화의 공고화가 이루어졌다(김영태 2006, 265-268).

5·18 민주화 운동이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적 권력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견인한 중요한 사회운동이었다는 사실은 2018년 3월 공개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개헌안은 법 전문(前文)에 현행 헌법전문에 포함돼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정신과 함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발전할 것을 선언하였다(BBC News Korea, 2018). 하지만 무엇보다 5·18 민주화 운동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가장 중요한 단초는 국민들의 의견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2000년 KBS 방송문화연구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0.2%가 5·18 민주화 운동을 한국 민주화에 가장 많이 기여한 긍정적인 요소로 꼽아 23.9%를 차지한 4.19혁명을 제치고 1위 차지했다(중앙일보 2000).

제 4장에서는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을 이들이 각 사회의 권력구조의 변화에 기여한 바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권력관계의 변화’라는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가능하기 위하여 요구 사항 관철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 그리고 권위주의의 구조적 청산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지점에서 각 운동의 기여도를 확인하였다.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의 비교 분석 결과, 두 운동은 모두 즉각적인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보이지만 이후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 그리고 권위주의의 구조적 청산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에 기여한 5·18 민주화 운동에 비하여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의 이 두 사안에 대한 기여도는 낮다고 판단된다. 즉,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에 비하여 5·18 민주화 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으로는 더 성공적인 사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 결론

본 연구는 사회운동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운동론의 다양한 연구들이 특정 사회운동의 성패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정작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편이었다. 사회운동의 성패의 규명에 대한 분석틀의 부재는 사회운동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성패를 규정하는 데에도 난관으로 작용하였다. 무엇이 사회운동의 성공요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문적 토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성공과 실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학술적인 의미 뿐 아니라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 민주화 운동의 경우, 성공과 실패를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규명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에서 성공의 정의로 여겨지는 권력관계의 전환을 사회운동론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에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규명하기 위하여 민주화 운동의 행위주체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 행위주체들에게 가해진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 그리고 권위주의의 구조적 청산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에 각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표면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탄압을 받고 해체된

민주화 운동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는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이 각 사회의 권력관계 변화에 기여한 바는 상당히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은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이나 권위주의의 구조적 청산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에 끼친 영향은 미미한 반면, 5·18 민주화 운동의 경우 운동 당시 즉각적인 요구사항 관철에는 실패하였으나 이후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과 권위주의의 구조적 청산을 통한 권력 관계의 전환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성공한 민주화 운동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앞서 언급한 사회운동의 성공 여부를 행위주체와 국가 간 권위주의적 권력관계의 전환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단기적 전략의 성공 혹은 동원의 규모 등으로 사회운동의 성패를 파악하는 기존 사회운동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성공 요인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가능케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을 규명하는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을 분석한 결과,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심도 깊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두 운동의 표면적 성패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특정 민주화 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그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가늠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작업이다. 성공한 민주화 운동이 실패한 민주화 운동보다 더 가치 있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 실패한 민주화 운동이 주는 상당한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싹트기도 한다. 다양한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을 정확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민주화 운동의 성과가 어떠한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교훈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냉정한 준비운동이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Allier-Montaño, E.(2016), “Memory and History of Mexico ’68. European Review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Revista Europea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y del Caribe*, Vol. 102, pp. 7-25.
- Ahn, Jong-chul(2015), “5·18 Yeoksa Wegokwa Unrunui Yeokhal”(Distortion of 5·18 History and Its Role of Media), *Simposium on 5·18 Democratization Movements 30st Anniversary*. pp. 3-17.
- Burstein, P., Einwohner, R., Hollander, J., & Burstein, P.(1995), “The Success of Political Movements: A Bargaining Perspective,” *the Politics of Social Protest;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tates and Social Movements*. edited by J. Craig Jenkins and Bert Klendermans, London: UCL Press.
- Choi, Won-Kyu(1988). “Hankookui Jeongchiwa Kookka: Kwonwhijuuicheje Sunglipui Jeongchikyeonghakseok Bunseok: Yooshin Chejeui Gyeonwoo”(Polisic and the State in Korea: Political Economy of Establishment of Authoritarian System-Focusing on Yooshin Regime), *Hankookkwa Kookjejeongchi*, Vol. 4, No. 1, pp. 97-176.
- Cohen, D., & Frazier, L.(2018),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Mexico ’68 and the Winter of Revolutionary Discontent”(Essay),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23, No. 3, pp. 739-743.
- Chung, Tae Il(2012), “The 1980s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and It’s Change of Political Structure,”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63, pp. 189-208.
- Flaherty, G.(2016), *Hotel Mexico: Dwelling on the ’68 Movement*, Oaklan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amson, W.(1990),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
- Giugni, M.(1998), “Was it Worth the Effort? The Outcom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4, No. 1, pp. 371-393.
- Haiven, M. and Khasnabish, A.(2013), “Between Success and Failure: Dwelling with Social Movements in the Hiatus,” *Interface*, Vol. 5, No. 2, pp. 472-498.
- Hunter, R. J., & Lozada, H. R.(2019), “Solidarity (Solidarność) at Forty: Memories and Influences on Contemporary Poland —Does Solidarity Still Matter?,” *Europea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Vol. 11, pp. 97-112.
- Jee, Byung-Moon and Kim Chul-Hong(2001), “May Movement of Kwangju for the Transformation of Urban Structur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4, No. 4, pp. 179-198.
- Kim, Hee Song(2015), “A Study on the Meaning and the Actualization of Gwangju Community May 1980,” *Theological Perspective*, Vol. 190, pp. 62-96.
- Kim, Yoon-Kyung(2018), “68 in Mexico: A Resistance against Authoritarianism,” *SOYANGSARON (The Western History Review)*, Vol. 138, pp. 38-65.

- Kim, Young-Tae(2006), "The Proces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13, No. 1, pp. 237-285.
- Korkut, Umut(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zation and Invigoration of Civil Society: The Case of Hungary and Poland," *East European Quarterly*, Vol. 39, No. 2, pp. 149-177.
- Lee, Byung-Chun(2000), "Baljeonkookkachejewa Baljeon Dillema: Kookkajuuijeok Baljeondongwonchejeui Jejomyung"(Developmentalist System and Dilemma of Development: Reevaluation of State-centered Developmentalism), *Kyeongje Sabak(History of Economy)*, Vol. 28, pp. 105-138.
- Lim, Hyun-Chin(2005), "Revisiting Park Chung-Hee's Yushin Regime: South Korea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Segyejijeoknonchong(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 23, No. 2, pp. 269-302.
- McAdam, D., McCarthy, J. D., & Zald, M. N.(1988), "Social movements," *Handbook of Sociology*, edited by N. J. Smelser, Sage Publications, Inc.
- Noe, Young Gi(2014), "Civil-military: Citizens Who 'Taken up Guns'", *Critical Review of History*, 2014.5, pp. 253-279.
- \_\_\_\_\_(2013), "The Background of the 5·18 Democratic Uprising and Parties Which Joined It", *YKSA WA HYNISIL: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Vol. 89, pp. 343-377.
- Paley, Julia(2001), *Marketing Democracy: Power and Social Movements in Post-Dictatorship Chile*,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rk, Yong-Il(2008), "6 Wol Hangjaeng, Jeolbaneui Sungkong"(Struggle of June, Incomplete success), *Naeileul Yeonun Yeoksa(History Which Opens up the Future)*, Vol. 33, pp. 85-99.
- Pensado, J.(2013), *Rebel Mexico Student Unrest and Authoritarian Political Culture during the Long Sixtie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Quezada, S., and Rangel, J.(2006), "Neither Truth nor Justice: Mexico's De Facto Amnest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3, No. 2, pp. 56-68.
- Russell, P.(2011), *The History of Mexico: From Pre-Conquest to Present*, New York: Routledge.
- Snow, D., Soule, S., and Kriesi, H.(2004),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edited by David A. Snow, Sarah A. Soule, and Hanspeter Kriesi. Malden, MA: Blackwell Pub.
- Weber, Max.(196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New York: Bedminster Press.
- Yoon, Seon-ja(2005), "518 Gwangju Uprising and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Korea, 1980~1990,"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Vol. 5, No. 2, pp. 79-110.

## News and Websites

-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Foundation, <http://www.518.org/sub.php?PID=010101>
- Abascal, Rafael(2020), “Se agudiza desconfianza en partidos políticos,” *Indicador Politico*, 2020.04.19., <http://www.indicadorpolitico.mx/?p=105538>
- BBC News Korea(2018), “Moon Jae In Gacheonhan Balui: 6gaji Jaengjeom Jeongri”(6 Main Points of President Moon Jae In’s Constitutional Reform Bill), 2018.03.18., <https://www.bbc.com/korean/news-43455050>
- Figueroa, Brittney(2015), “Officially Unofficial: The Evolution of Mexico’s Student Protests,” *Council on Hemispheric Affairs*, 2015.04.20., <http://www.coha.org/officially-unofficial-the-evolution-of-mexicos-student-protests/>
- Huffington Post(2016), “5·18 Daehan Maewoo Shewoon Seolmyung 6gaji”(6 Ways to Easily Explain 5·18 Democratization Movements), 2016.05.18,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18/story\\_n\\_10015576.html](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18/story_n_10015576.html)
- Joongang Ilbo(2000), “Minjoochwai Gyunincha: Gwangju Minjuhwa Wundong”(Trigger of Democratization: 5·18 Democratization Movements), 2000.04.17, <https://news.joins.com/article/3904749>
- KBS News(2017), “Moon Daetongryung 5·18 Chodbulhyeokmyung Jeonshin Badduleo Minjujuui Bokwonhalgud(President Moon: We should Restore Democracy Based on the Sprite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Candle Revolution),” 2017.05.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2665>
- Kim, In-hwe(2019). “Chodbul Hyeokmyungui Jeongshinul Goochejeokin Jeongchaek Seongkwaro”(Making the Spirit of Candle Revolution into Concrete Policy Outcomes), Korean Policy Briefing,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66448>
- Korea Economic Daily(2009), “Eo Yun Dae Kookka Brand Wiwonjang ‘Dynamic Korea’ Bakwaya”(The Director of National Brand Committee, Eo Yun Dae: ‘Dynamic Korea’ should be replaced), 2009.07.16.,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071583991>
- Lim, Hyuk-Baek(2017). “Chodbul Hyeokmyungui Ghwaje”(The lessons from Candle Revolution), The Kyunghyang Shinmun, 2017.11.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1172016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1172016005)
- Maeil Business News Korea(2019), “12·12 Satae Joomok... 1979nyun 12wol 12il Chun Doo Whan Rho Tae Woo ga Gangjero”(Attention to 12·12 Coup... Chun Do Whan and Rho Tae Woo Coerced on 12<sup>th</sup> of Dec. of 1979), <https://mk.co.kr/news/society/view/2019/12/1039373/> 2019.12.12.

Article Received: 2020. 09. 05.

Revised: 2020. 10. 15.

Accepted: 2020. 10. 19.